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부담구조 비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별 특수성이 반영된 동일한 분석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도별로 수익비를 비교하였음

- 공무원과 사학연금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0년 신규입직을 기점으로 전후 공무원 세대간 수급구조가 이원화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 최근 이루어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법개정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급여수준을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거나 현재 국회에 (군인연금)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인별 또는 세대별 부담과 수급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어느 정도 기초로 하여 설계된 제도로, 보험료 부담과 급여사이에 수리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자 본인의 부담과 급여간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2010년부터 가입하는 후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확연하게 낮은 급여를 지급받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개인별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수급부담구조 분석은 기존에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각각의 제도별로 인구 및 경제변수 등은 다른 가정을 반영하여 분석하고 있음

○ 공적연금 제도별 특수성은 반영하되 분석틀을 동일하게 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부담구조에 대한 분석지표는 수익비 (benefit-cost ratio)를 기준으로 제도별로 비교함¹⁾

○ 수익비는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급여를 얼마나 받아 가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 대비 은퇴 이후 받게 되는 총 연금급여액을 뜻함

1) 수익비 외에 주요지표로는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수지균형보험료율 등으로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할 수 있음. 내부 수익률은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의 합과 수급하는 연금액 총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뜻함(수익비가 '1' 일 때 할인율).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수급하는 연금액 총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를 뜻하는데 즉 수익비가 '1' 이 되는 보험료율임

$$\begin{aligned}
 \text{수익비} &= \frac{\text{현재화된 보험료의 총합}}{\text{현재화된 연금급여액 총합}} \\
 &= \frac{\sum_{y=1}^m \text{연금액}_{n+1} \times \prod_{i=1}^{y-1} (1+\text{연금인상률}_i) \times \prod_{k=1}^y \frac{1}{(1+\text{할인률}_{n+k})}}{\sum_{y=1}^n \text{보험료부과소득}_1 \times \prod_{j=1}^{y-1} (1+\text{임금상승률}_j) \times \text{보험료율}_y \times \prod_{j=1}^{y-1} (1+\text{할인률}_j)}
 \end{aligned}$$

2. 분석개요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익비 분석을 위한 기대수명 가정은 2011년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의 가정을 적용함
 - 최근 들어 100세 시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200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가정에 비해 장기적으로 기대수명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통상 일반국민의 기대수명보다 긴 편이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통계청의 기대수명을 그대로 적용함

〈표 1〉 수익비 분석을 위한 기대수명 가정 :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단위: 세)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이후
남자	58.67	61.78	67.29	72.25	77.20	79.31	81.44	83.42	85.09	86.59
여자	65.57	70.04	75.51	79.60	84.07	85.67	86.98	88.21	89.28	90.30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경제변수 가정은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적용함
 - 직역연금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표 2〉 수익비 분석을 위한 경제변수 가정 :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단위: %)

경제변수가정 ¹⁾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2061~
경제성장률(명목)	6.8 / 6.5	4.8	3.7	3.2	2.9	2.7
임금상승률(명목)	6.3 / 6.0	5.3	4.9	4.6	4.5	4.5
금리(명목)	6.3 / 6.0	4.9	4.4	4.2	4.0	3.8
물가상승률 ²⁾	2.7 / 2.4	2.0				

주: 1) 경제변수가정시 합계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하였으므로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 중위가정인 1.40명을 반영할 경우 경제변수 가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2) 2.7%는 2011 ~ 2015년, 2.4%는 2016 ~ 2020년 각각의 물가상승률임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소득기준은 제도별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분석

- 국민연금의 경우 직역연금과의 비교를 위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수익비를 분석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외하고 직역연금과 비교함

가입기간은 10년, 20년, 30년, 40년으로 분석

- 직역연금의 경우 2010년 이전에는 최대가입기간을 3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의 비교 및 개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입기간 40년에 대해서도 분석함

가입시점은 1990년, 2010년, 2030년으로 분석

- ‘2010년’은 2009년 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에 의해 일부 개정법 내용이 2010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준으로 함
 - 군인연금은 2011년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2010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적용하여 분석함
- 최근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을 개정한 2008년과 2009년 이전인 ‘1990년’을 기준으로 수익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개정효과를 살펴봄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 이후 40%(40년 가입기간 기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2030년을 기준으로 분석함
 - 또한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기대여명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의 특성상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30년을 기준으로 분석함

〈표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익비 분석개요

가입 시기	가입 기간	소득 기준	수급연령		
			국민연금	공무원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1990년	10년	제도별 평균소득	60세~64세	55세	42세
2010년	20년		62세~65세	65세	53세
	30년				
2030년	40년				55세

3. 분석결과

□ 2010년 신규로 가입할 경우 공적연금 수익비 분석결과

- 국민연금의 수익비(남성)는 가입기간에 따라 1.19배(20년)~1.16배(40년)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수급기간이 길어지므로 가입기간에 따라 수익비는 1.65배(20년)~1.7배(40년)로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비가 낮아지는 현상은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인상²⁾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1.34배(20년)~1.37배(40년)로,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익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18%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인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1.87배(20년)~2.4배(40년)로 국민연금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예측됨
 - 20년 이상 가입하면 퇴역시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비해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익비가 75%pt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 2010년 가입자의 수급가능연령은 수급시점에 따라 62세에서 65세로 인상됨

〈표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 (2010년 신규가입시)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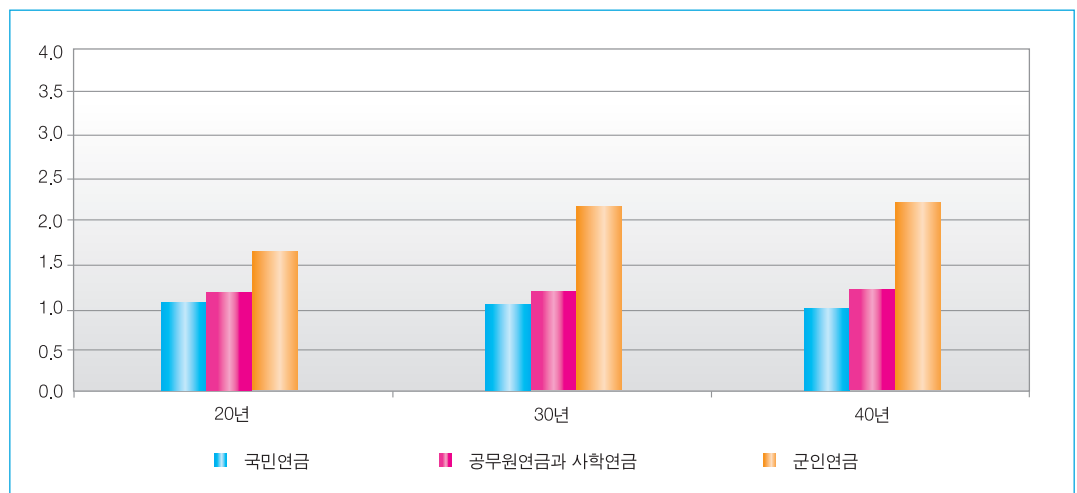
구분		수급연령 가정	10년	20년	30년	40년
남성	국민연금	62세~65세	1,22	1,19	1,17	1,16
	공무원과 사학연금	65세		1,34	1,36	1,37
	군인연금 ¹⁾	55세 ²⁾		1,87	2,38	2,40
여성	국민연금	62세~65세	1,68	1,65	1,71	1,70
	공무원과 사학연금	65세		1,87	1,99	2,01
	군인연금 ¹⁾³⁾	55세 ²⁾		1,87	2,38	2,40

주: 1) 군인연금의 경우 2010년 신규가입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적용함

2) 군인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09년 실적자료로, 현재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제약이 두지 않고 있고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53세로 가정함.

3) 군인연금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 중심으로 분석함

[그림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 (2010년 신규가입시)



□ 2030년 신규가입자에 대한 공적연금 수익비 분석결과

- 2010년 신규가입자에 비해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수익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단 군인연금의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2세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2010년에 비해 소폭 낮아짐을 알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201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49%에서 2028년 40%까지 매년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반영하고 있음
 - 2030년부터는 소득대체율이 40%로 적용되므로 직역연금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2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 (2030년 신규가입시)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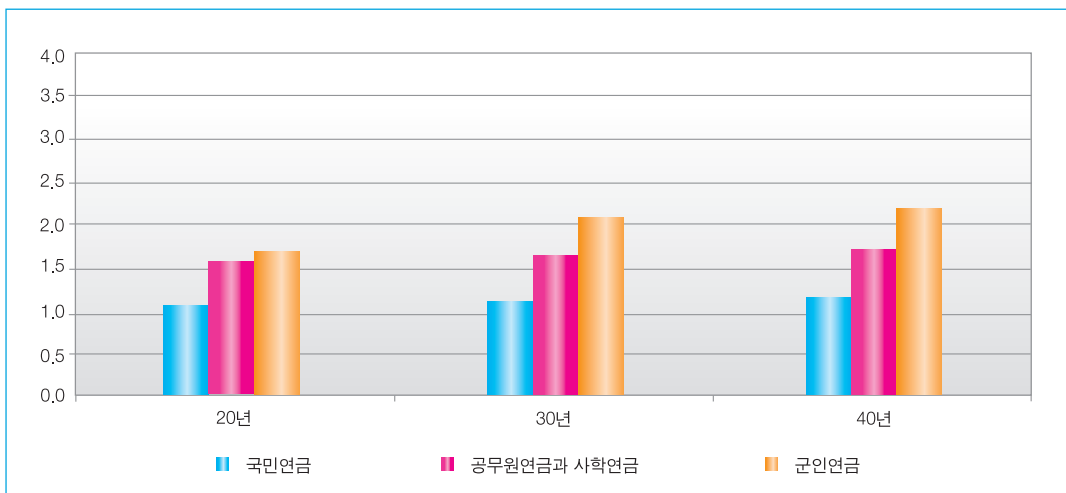
구분		수급연령 가정	10년	20년	30년	40년
남성	국민연금	65세	1.32	1.36	1.39	1.41
	공무원과 사학연금			1.70	1.74	1.75
	군인연금 ¹⁾	55세 ²⁾		1.87	2.23	2.25
여성	국민연금	65세	1.44	1.49	1.79	1.81
	공무원과 사학연금			1.87	2.23	2.25
	군인연금 ³⁾	55세 ²⁾		1.87	2.23	2.25

주: 1) 군인연금의 경우 2010년 신규가입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적용함

2) 군인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개정안에서 제약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2009년 기준 53세에서 55세로 인상될 것으로 가정함

3) 군인연금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 중심으로 분석함

〈그림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 (2030년 신규가입시)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개정전 제도를 적용받는 1990년 가입자에 대해 수익비를 분석함으로써 법개정 효과를 살펴보았음

○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2.83배(20년)~1.77배(40년)로 연금을 덜받는 2010년 가입자에 비해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2.5배(20년)~1.85배(40년)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010년 가입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수익비가 높게 나타남

○군인연금의 경우 평균수급연령이 42세로 가입기간에 따라 3.42배(20년)~3.3배(40년)로 수익비가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2010년 개정안에 비해 38%pt 높아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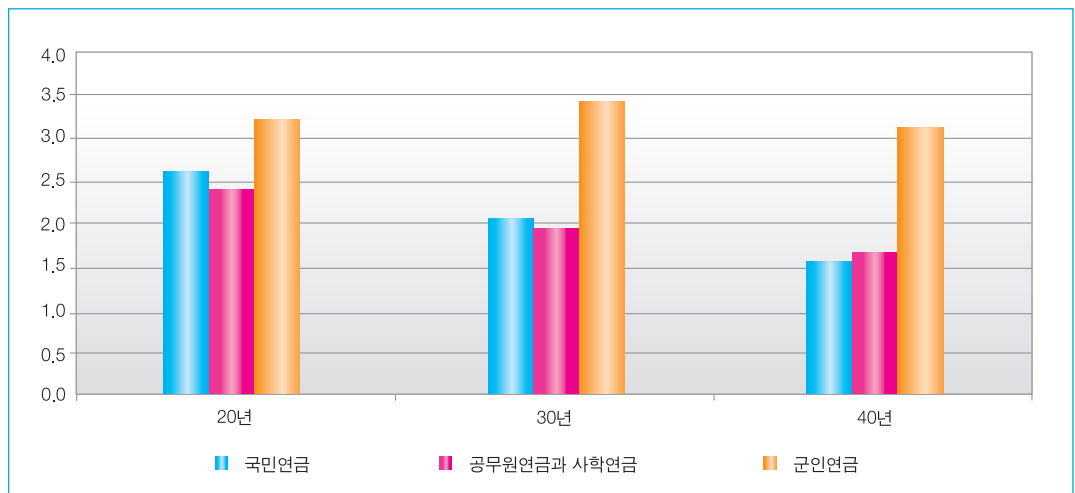
〈표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 (1990년 신규가입시)

(단위: 배)

구분		수급연령 가정	10년	20년	30년	40년
남성	국민연금	60세~64세	4.05	2.83	2.17	1.77
	공무원과 사학연금	55세		2.50	2.02	1.85
	군인연금 ¹⁾	42세 ²⁾		3.42	3.54	3.30
여성	국민연금	60세~64세	4.22	2.95	2.90	2.50
	공무원과 사학연금	55세		3.42	3.13	2.90
	군인연금 ¹⁾³⁾	42세 ²⁾		3.42	3.54	3.30

주: 1) 군인연금의 경우 2010년 신규가입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적용함
 2) 군인연금은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제약이 두지 않으므로 42세로 가정함
 3) 군인연금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 중심으로 분석함

[그림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 (1990년 신규가입시)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별 특수성은 반영하되 분석틀을 동일하게 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음
 - 2010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수익비는 국민연금에 비해 18%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면 퇴역시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비해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익비가 75%pt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0년 직역연금은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나, 개정된 이후에도 낸 돈에 비해 받아가는 돈의 비율이 국민연금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개정전 제도를 적용받는 1990년 가입자에 대한 수익비를 살펴본 결과
 - 국민연금의 경우 2010년 가입자에 비해 53%pt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과 사학연금의 경우 2010년 가입자에 비해 35%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법개정 후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직역연금의 경우 2010년 법개정에 의한 재정절감 상당부분이 공무원 세대간 수급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정 후에도 발생하는 비용지출의 부족분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0년을 기점으로 전후 공무원 세대간 수급구조가 이원화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화연(사회보험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02-380-8139)